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강문일)은 지난해 12월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조사기관 : 한국갤럽)를 실시하였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의식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검역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태도가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호응도도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고,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83.8%에 이르는 등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등록제에 대하여 각각 72.5%, 89.5%의 찬성을 보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동물보호 전담 부서가 신설된 지금, 국민의 89.2%가 동물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 · 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만큼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내용** :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만20세 ~ 64세 성인 남녀 2,015명
- **조사기간** : '06. 12. 5 ~ 10 (6일간)
- **조사방법** :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표본오차** : ±2.2%(95%신뢰수준)

≫ 결과 요약

- 국민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인식(71.4%)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89.2%)임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 새로 도입된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 등록제에 대하여 각각 72.5%, 89.5%의 찬성을 보여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동물학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견이 83.8%에 이르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에도 대다수(92.8%)가 찬성하고 있었음
-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은 22.6%이며 주로 개를 사육하고 있었음(97.8%).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호감도는 '좋다' (35.0%)와 '싫다' (40.2%)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에 대하여 70.8%가 찬성하나 산이나 공원처럼 넓고 개방된 장소(75.9% 찬성)가 아닌 일반 공공장소의 반려동물 출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음식점 85.4%, 숙박시설 64.9%, 대중교통 59.9% 반대)
-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 공간 마련에 대해 대다수(88.2%)가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동물 안락사에 관한 찬반은, '반대(50.6%)' 와 '찬성(45.6%)' 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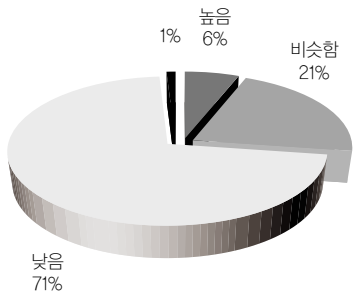
1. '동물보호 정책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도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관한 평가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 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1.4%이며, '높은 수준' 이라는 응답자는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 BBC News('05.3), MORI(영국 조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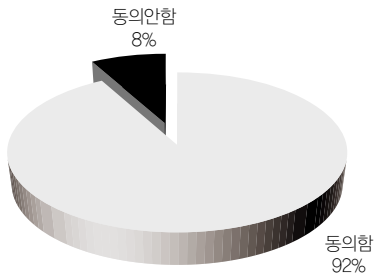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이다	0.9%
다소 높은 수준이다	5.4%
비슷한 수준이다	21.0%
다소 낮은 수준이다	53.4%
매우 낮은 수준이다	18.0%
모름/무응답	1.3%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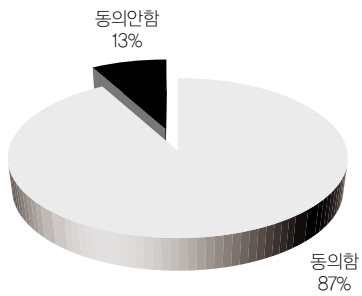
■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의식

•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는 것에 92.2%, '이를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는 것에 대해 86.5%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	
매우 동의한다	35.0%
동의하는 편이다	57.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9%
모름/무응답	0.2%
합 계	100.0%



동물의 고통 최소화를 위해 법으로 규제	
매우 동의한다	28.9%
동의하는 편이다	57.5%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0.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8%
모름/무응답	0.4%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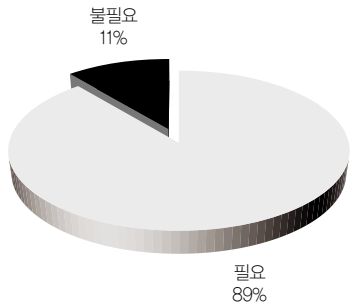
– 동의하는 비율은 영국의 조사 기관(MORI)[1]이 '04년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같거나 증가하였으며, 동물보호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 국민의 의식과 비슷한 수준임

구 분		갤럽 조사	MORI 조사			
		한국('06)	한국('04)	영국('05)	중국('04)	베트남('04)
동물의 고통 최소화 도덕적 의무	매우 동의	35%	43%	58%	30%	77%
	동의하는 편	57%	50%	33%	60%	16%
	합 계	92%	93%	91%	90%	93%
동물의 고통 최소화 법으로 규제	매우 동의	29%	31%	60%	19%	75%
	동의하는 편	58%	46%	32%	58%	15%
	합 계	87%	77%	92%	77%	90%

■ 동물보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89.2%로 높게 나타나, 동물

동물보호 정책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21.9%
어느 정도 필요하다	67.3%
별로 필요하지 않다	8.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4%
모름/무응답	0.2%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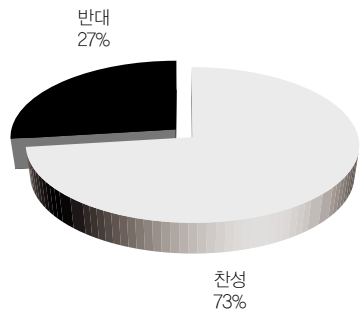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물보호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한 주요 이유는 '동물보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38.8%)',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선(30.3%)' 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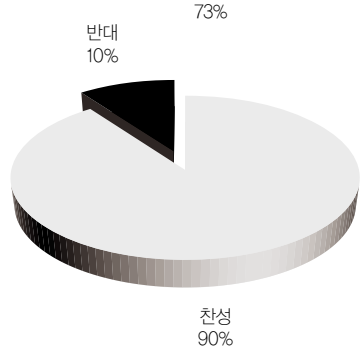
2.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한 의견

■ 동물등록제와 동물판매업등록제 도입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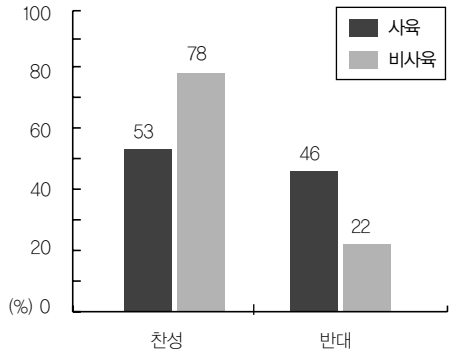
동물등록제	
매우 찬성한다	24.2%
찬성하는 편이다	48.3%
반대하는 편이다	19.1%
매우 반대한다	7.9%
모름/무응답	0.4%
합 계	100.0%



동물판매업 등록제	
매우 찬성한다	47.7%
찬성하는 편이다	41.8%
반대하는 편이다	6.3%
매우 반대한다	3.8%
모름/무응답	0.4%
합 계	100.0%



• 동물등록제[2]와 동물판매업등록제[3] 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72.5%, 89.5%의 찬성을 보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육여부에 따른 찬반 양상

–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경우 정책수요자인 동물 소유자의 찬성률이 53.2%에 그쳤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강구 및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2)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소유자 및 동물을 등록하게 하여 유기동물 발생 억제, 예방접종 관리, 소유자 책임 의식 고취 및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제도

3) 동물판매등록제 :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동물판매업소를 국가에 등록하게 하고, 건강한 동물의 번식과 판매를 유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번식과 이로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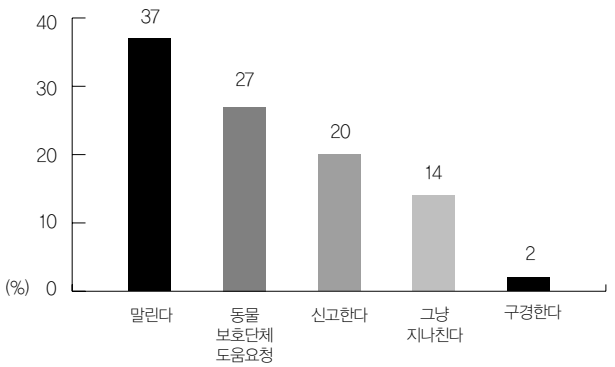
■ 동물등록제 등록수수료에 관한 의견

• 동물등록 시 등록 수수료는 '등록할 때 한 번' 만 받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7.7%로 '매년 납부(22.9%)' 의 세 배 가량 많았으며, 등록 시 한 번 납부하는 경우의 등록수수료로 '1~2만원(26.6%)' 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3. 동물학대 및 동물 보호 활동에 관한 의견

■ 동물학대에 대한 대처

• '만약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도구를 이용하여 개를 심하게 때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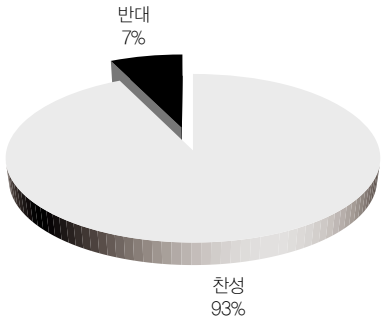
동물학대에 대한 대처

는 질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응답이 83.8%에 이름

■ 동물학대가 심한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격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

• 동물을 심하게 학대할 경우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92.8%)가 찬성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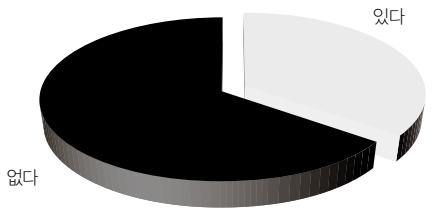
피학대 동물 격리	
매우 찬성한다	54.9%
찬성하는 편이다	37.9%
반대하는 편이다	5.4%
매우 반대한다	1.6%
모름/무응답	0.2%
합 계	100.0%



■ 동물보호 활동 참여 의사

• 국가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교육, 자원봉사활동 같은 동물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5.1%로, 우리나라 국민의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비율4)이 약 25% 정도임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주로 20대(47.1%), 학생(49.6%) 층에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났음

동물보호 활동 참여 의사	
매우 그렇다	3.7%
그렇다	31.4%
그렇지 않다	39.9%
전혀 그렇지 않다	24.9%
모름/무응답	0.1%
합 계	100.0%



4. 반려동물 사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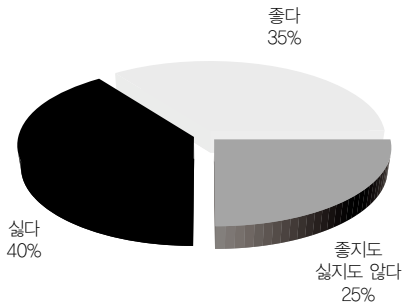
■ 반려동물 사육 실태

•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은 22.6%이며 주로 1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음(65.0%). 대부분(97.8%)의 가정에서 개를 사육함.

■ 반려동물 사육 호감도

•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35.0%)와 '싫다'(40.2%)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24.8%임

반려동물 사육 호감도	
매우 좋아한다	10.4%
좋아하는 편이다	24.6%
좋지도 싫지도 않다	24.8%
싫어하는 편이다	23.8%
매우 싫다	16.4%
합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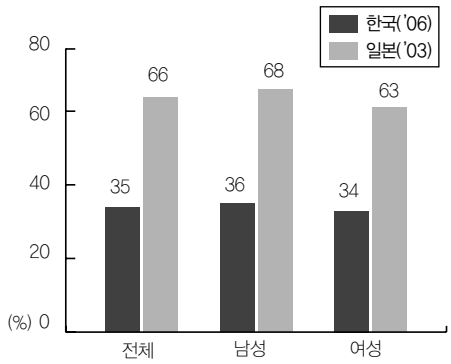


4) 2006년 통계청 사회 통계조사(사회참여 부문) 결과임

– 일본('03년)[5]은 우리나라에 비해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았으며, 두 나라 모두 여성 보다는 남성의 호감도가 근소하게 높았음

5) '동물애호에 관한 여론조사'(일본 내각부, '03)

반려동물 사육 호감도			
구 분		한국('06)	일본('03)
좋다	전체	35%	66%
	남성	36%	68%
	여성	34%	63%



■ 반려동물 사육 및 비사육 이유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유로는 '가족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등 주로 정서적인 이유(77.7%) 때문으로 나타났고 기르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위생 상의 염려(52.5%) 때문이었음

– 일본('03)의 경우, 기르는 이유로는 '가족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기르지 않는 이유로는 '충분히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뒷 페이지 참고)

–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공동주택 거주'(18.3%)를 꼽았음

반려동물 사육 이유		반려동물 비사육 이유	
가족들이 동물을 좋아해서	39.6%	털 날린다	17.0%
본인이 동물을 좋아해서	16.7%	집이나 마당이 더러워져	11.2%
방범용 등 특수목적	15.1%	질병이 옮을까 우려되어	11.2%
외롭기 때문에	11.7%	공동주택 거주	10.5%
정서교육	3.5%	시간이 없어서	9.0%

■ 반려동물 사육 시 문제점

•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환경이 불결해지는 것'(20.7%) 등 주로 위생 상의 문제(52.5%)였으며, 타인이나 이웃이 개나 고양이를 기를 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짖거나 우는 소리'를 꼽은 응답자가 31.8%로 가장 많았음. '공공장소에 배설물을 방치(23.3%)' 하는 문제도 큰 문제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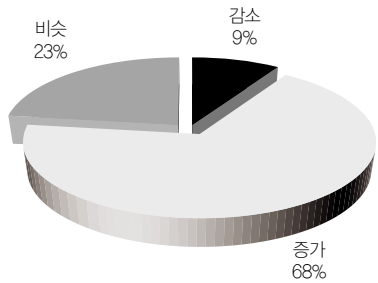
가정에서 반려동물 사육 시 문제점		타인이 반려동물 사육 시 문제점	
환경이 불결해지는 것	20.7%	짖거나 우는 소리	31.8%
질병이 옮을 가능성	14.3%	공공장소 배설물 방치	23.3%
털 날린다	14.1%	공공장소에 동물을 풀어놓음	6.0%
타인에게 피해	12.6%	털이 날림	3.9%
소음	5.3%	물리는 등 사고 위험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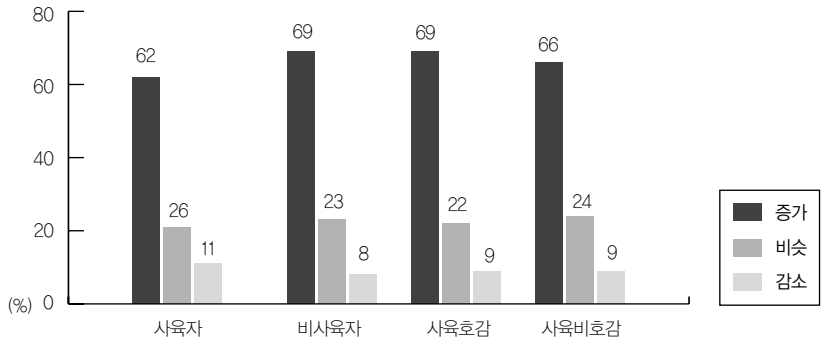
– 일본('03)의 경우,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버려진 개나 고양이가 많다'를, 타인이나 이웃이 개나 고양이를 기를 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공장소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 소유자의 매너가 나쁘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 향후 반려동물 사육율 전망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상당수(67.2%)는 향후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반려동물 사육율 전망	
늘어날 것이다	67.2%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23.4%
점차 줄어들 것이다	9.0%
모름/무응답	0.4%
합 계	100.0%





반려동물 사육율 전망

– 향후 반려동물 사육율에 대한 전망은 반려동물 소유 여부,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호감 여부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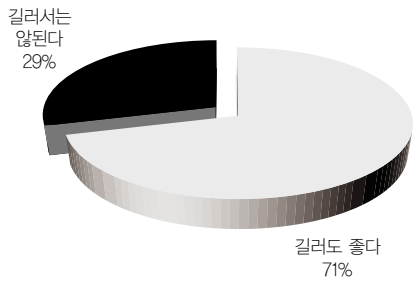
4. 공동생활에서 반려동물 사육과 출입에 관한 의견

■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의견

•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 70.8%는 '길러도 좋다' 고 응답하였으나, 이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길러도 좋다' 가 66.6%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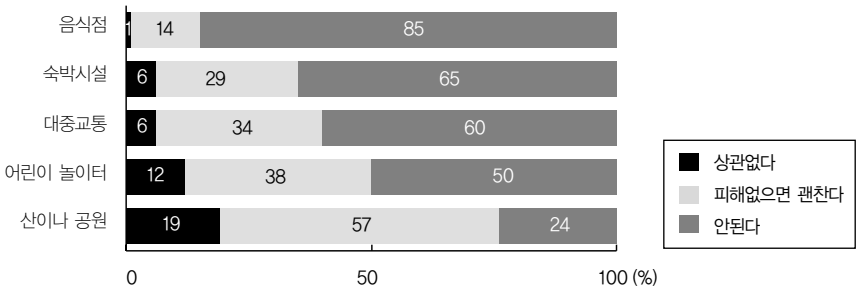
– 참고로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자의 71.7%,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응답자의 68.5%가 '길러도 좋다'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길러도 좋다' 라고 응답함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사육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길러도 좋다	66.6%
길러서는 안 된다	29.2%
길러도 상관없다	4.2%
합 계	100.0%



■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동반에 관한 의견

• 대다수(85.4%)의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음식점' 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호텔 등 숙박시설(64.9%)' 이나 '대중교통(59.9%)' , '어린이 놀이터(50.2%)' 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반수 이상이 '안 된다' 고 응답함. 그러나 '산이나 공원' 에 대해서는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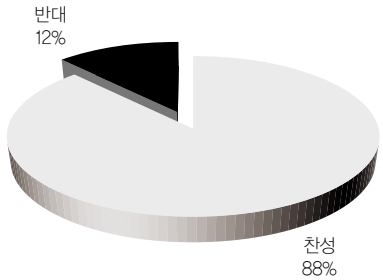
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가 . '괜찮다' 고 응답해, 넓고 개방된 장소에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 공간 마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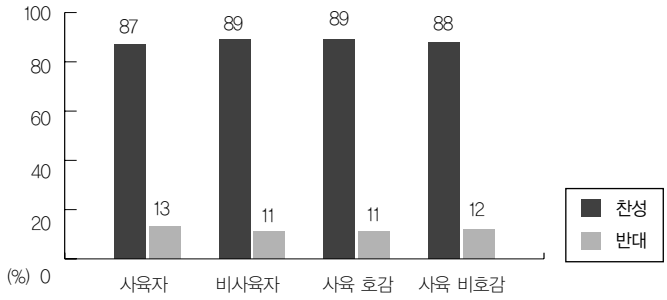
• 공원에 울타리 등으로 격리된 공간을 따로 만들어, 개의 목줄을 풀고 운동을 시킬 수 있게 하고,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 구역 마련	
매우 찬성하는 편이다	34.7%
찬성하는 편이다	53.5%
반대하는 편이다	7.3%
매우 반대한다	4.4%
모름/무응답	0.2%
합 계	100.0%



그 외의 장소에서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는 것에 대해 대다수(88.2%)가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의견은 반려동물 사육 여부,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호감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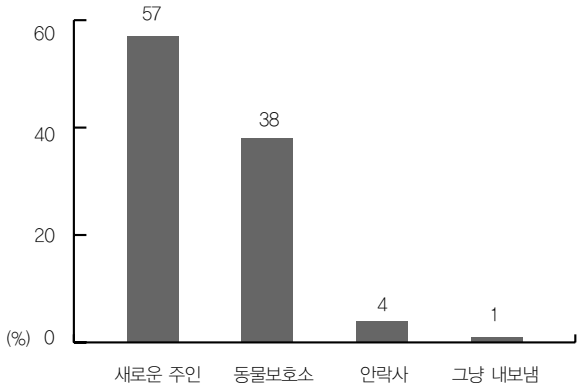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 구역 마련

5. 반려동물 처리

■ 반려동물 처리 방법

•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사정상 기를 수 없게 된 경우 '새로운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물보호소에 데려간다'는 응답은 37.7%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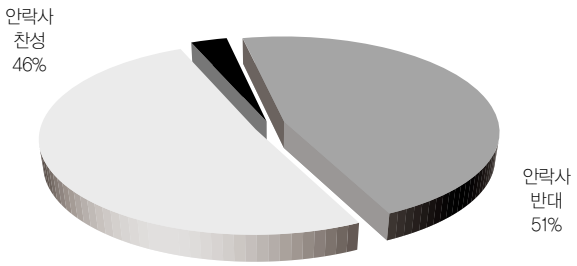


반려동물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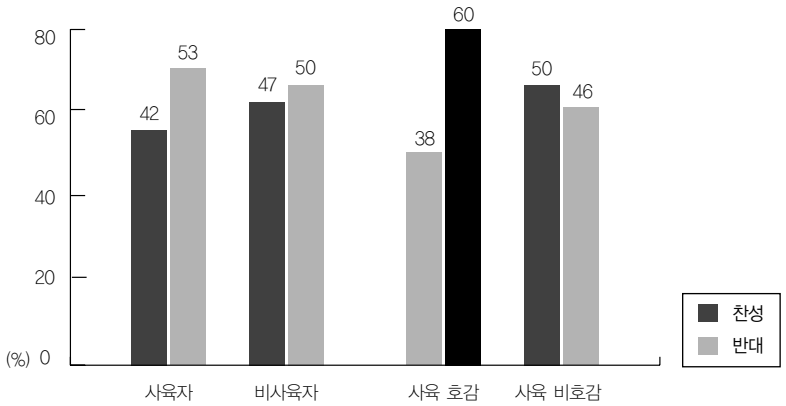
■ 유기동물 안락사에 관한 의견

• 시 · 군 · 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없을 경우, 개와 고양이를 안락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락사 시켜서는 안 된다(50.6%)'는 의견과 '안락사 시켜야 한다(45.6%)'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원 내 반려동물 자유운동 구역 마련	
매우 찬성하는 편이다	34.7%
찬성하는 편이다	53.5%
반대하는 편이다	7.3%
매우 반대한다	4.4%
모름/무응답	0.2%
합 계	100.0%



– 이에 대한 찬반은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었으나, 반려동물 사육에 관한 호감도 와는 다소 관련이 있었음



유기동물 안락사 찬반